

# 景觀正體性 向上을 위한 全州八景의 解釋에 관한 研究\*

申相變 · 盧載鉉

又石大學校 自然科學大學 造景學科

## A Study on the Reinterpretation of ChonJu Palkyong for Improvemnet of Landscape Identity

Shin, Sang-Sup · Rho, Jae-Hyu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

### ABSTRACT

This thesis is to newly understand the vaule and the meaning of Chonju Palkyong(全州八景) by the specific gravity in making a counter-proporsal in other to improve the landscape identity of modern city and at the same time. I intended to grope the grafting device for the preservation and regeneration of modern history cultural environmen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landscape construction.

The meaning system of Chonju Palkyong showed the symbolic system which a landscape construction, four directions and two places has and exhibited the landscape shape possessing a luxuriant local feature peculiar to Chonju, preserving visual bound language of a classical Palkyong. Especially, it implies the use of the substantial landscape experienced factor, the expressions about natural phenomena and the matter which has melted human living circumstances.

The landscape construction and it's form show the system which forms the different time field, a far landscape and a mid distance landscape and a near landscape, etc., under the visual, psychological, scenic influenced area, preserving the feature of the similar and typical type of Sosang Palkyong (瀟湘八景) which intended to seek the local reappearance of the famous site experienced type and natural matter which famous place and local conduct were combined.

The object space of Chonju Palkyong area representing the nature of historical landscape cultural assets, pushed by the greater part of the development based theory, shows injured aspects, but needs to play a part to seek such a up-to-date successive plan as the reconstruction of the destoryed

\*본 연구는 1998년도 우석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historical landscape area which motivated Palkyong, the establishment of useful area, the embodiment of the cultural identity of Palkyong area and the becoming of the educational cultural life space.

The analysis of the landscape construction of Chonju Palkyong and the groping of the modern successive plan which I considered in this thesis, will be able to become a fundamental data to carry out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landscape and the landscape plan in the city.

*Key Words : Landscape Identity, Chonju Palkyong,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 I. 序論

都市景觀은 우리 삶과 역사의 거울이자 당대 도시 사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도시는 단순히 조형적 아름다움만이 아닌 특유의 개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역사와 풍토, 정서를 반영하는 그 곳 도시민의 상징으로 景觀正體性(landscape identity)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金漢培, 1998).

현대 한국의 문화현상은 외래문화와 고유문화의 혼재에서 오는 이중구조와 시간적 중복성에서 오는 충격으로 전통과 현대의 가치관과 규범이 서로 엇갈리는 문화적 충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全州市, 1986) 특히, 기능성 위주의 도시개발은 文化資源이나 역사적 遺物들의 훼손을 초래하였고, 경관정체성 상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독일의 鄉土造景(bodenstandige garten kunst)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 외국에서는 일찍이 역사문화환경의 保存과 再生에 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이에 대한 법률, 제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기술적 측면의 다양한 보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金東鉉, 1996).

우리나라는 1962년 文化財保護法이 제정된 이래 文化財 보존에 노력하고 있으나 포괄적 개념의 歷史文化環境 保全에는 관심과 애정의 손질이 미흡한 실정이다. 歷史文化環境이란 오랜시간을 두고 쌓아온 土着民들의 삶의 축적물로 자연환경속에 배어있는 公的 環境이며 물적, 정신적, 기능적, 감성적 환경 모두를 포함한다. (姜炳基, 1996) 이러한 역사문화환경은 역사와 문화를 傳承하고 읽어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중히 保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都市正體性 확보의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부분의 傳統都市와 같이 전주에도 歷史文化環境 資源인 八景(또는 十景)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전통도시의 교란기 이전 특징적인 文化風景(cultural landscape)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에서 八景에 대한 연구는 崔杞秀(1990)가 曲과 景의 경관해석을 통해 전통경관의 구조를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秦熙成과 盧載鉉(1991)은 경관의 특질과 구성요소의 상호관련성을 조작론적 측면에서 분석·평가하여 전통적 풍경개념의 구도를 밝히고자 했으며, 安啓福(1991)은 樓亭을 視點으로 경관 형성기법을 분석하였고, 姜榮祚와 金英蘭(1991)은 八景形式의 유형과 八景 選定處의 입지특성을 고찰하여 전통 八景의 형식적 특성을, 金仙一(1992)은 關東八景의 경관특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 등이 있으나 대부분 전통적 경관특성을 구명한 연구로 현대 도시구조 하에서 景의 보전을 모색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全州八景이라는 전통경관요소를 모티브로 도시 歷史文化環境 資源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재인식케 하는 동시에 歷史景觀의 保存과 再生이라는 차원에서 전주시 都市環境의 正體性을 提高시키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 II. 研究的 背景 및 方法

### 1. 理論的 背景

한국은 예로부터 山高水麗하여 高麗라 했고 아침이 맑은 고요한 나라라 하여 朝鮮이라 불러 왔다. 특히 자연경관은 四季가 뚜렷하고 산세가 좋아서 水木石이

어우러진 훌륭한 風景美를 간직하고 있으며, 선조들은 자연의 질서속에서 애착을 갖고 생활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였다. 즉, 자연과의 調和, 融合原則에 근거하여 자연에 순응하고 이해하려는 관념하에서 좋은 자리를 찾고, 그 지역 특유의 자연정취를 이용하여 八景 등의 傳統景觀相을 경영해 왔다.

한편 삶의 공간을 卜居란 주제로 정립한 李重煥의 '擇里志論'과 연계시켜 볼 때 卜居란 삶의 공간을 적합하게 선정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樂土와 福居의 人間定住 개념으로 제시되는 地理, 山水와 같은 자연환경과 人心, 生利와 같은 사회환경적 또는 문화적 측면이 통합된 체계내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樂土와 福居의 요건을 두루 갖춘 우리의 村落이나 邑城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훌륭한 삶의 공간이 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곳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환경과 연계된 歷史景觀의 保全은 교육적 효과 이외에 시각적, 미적 개념을 포함한 환경의 확보, 관광수입 증대 뿐 아니라 지역민에게 자부심을 일깨우는 정신적 중심 역할이 가능하다고 본다. (Attoe, 1979; 도시정보, 1988)

## 2. 研究方法

본 연구는 歷史景觀 文化財로서의 全州八景에 대한 경관가치적 특질과 그 구성요소의 상호관련성을 操作論의 側面에서 분석·평가하여 傳統的 風景概念의 構造를 밝힘과 아울러 현대적 解釋을 시도하였다. 즉, 秦熙成과 盧載鉉(1991)의 경관변동요인 분류법에 따라 경관대상을 분류하였으며 姜英祚과 金英蘭(1991)의 八景類型에 의해 瀟湘典型, 瀟湘類似型, 名所體驗型 및 名勝型으로 각 景을 분류하여 全州八景의 지정 특성을 고찰하였다. 한편 도면과 현지답사를 통해 景觀形式, 視距離, 八景對象의 向 構成體系, 眺望構圖 및 眺望形態 그리고 視點場에서 펼쳐지는 각 景의 변동요인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景의 잊혀진 경관요소와 새롭게 추가된 요소 그리고 옛 경관요소 중 현대적 감각에서 되살릴 요소는 무엇인가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全州八景을 포함한 歷史文化 環境資源의 보존과 계승방안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都市正體性 모색과 관련시켜 결론

을 도출하였다.

## Ⅲ. 全州八景의 構造

### 1. 對象域 概要

全州는 馬韓 이래 湖南의 중심지로 百濟때 完山, 統一新羅때 全州, 高麗때 全州牧 完山府, 조선때 全州府로 되어 全羅觀察使가 직무하는 監營所在地로 있다가 해방 이후 全州市에 이르기 까지 全羅北道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치를 지켜왔다. 東西 815m, 南北 945m, 面積 18만여평의 장방형 성곽을 가졌던 전주는(송정희, 1961) 北의 乾止山(103m), 東의 麒麟峰(271m)과 僧岩山(306m), 南의 南固山(248m)과 完山七峰(163m), 西의 多佳山(120m)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만경강 상류인 전주천이 흘러 舊邑의 경계를 이루었다. 상대적으로 북서면이 개방되어 風水의 의도로 德津池, 숲장이, 북문웅성, 客舍 후면의 造山 등 인위적 경관물을 여러겹 조성한 바 있다(張明洙, 1993). 주요 문화재로는 城의 남문이었던 豐南門, 客舍를 비롯하여 慶基殿(李太祖의 진전), 肇慶廟(全州李氏 始祖의 位牌 奉安), 鄉校 및 東固山城, 南固山城 등이 남아있다(국립지리원, 1982; 전주시, 1986).

### 2. 全州八景(또는 十景)의 構成

全州는 농경문화의 고장으로 넓은 평야와 하천, 산악이 조화를 이룬 지리적 조건과 풍요한 삶의 터전을 간직한 古都로 약 200여년전 작사로 믿어지는 全州八景(또는 十景)이 전해오고 있다. 이들 景 중 7개소는 현 행정구역상 全州市에, 3개소는 完州郡에 분포되어 있는데, 全州市史(전주시, 1974)에 소개된 全州十景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 ① 麒麟吐月 : 東으로 비껴솟은 「麒麟의 象」인 守護峰 정상에 비개인 달(霽月)로, 기린봉 위로 솟아 오르는 여의주같은 달을 賞讚한 風景
- ② 寒碧晴烟 : 玉流洞 아래 山寒水碧浮一樓 寒碧堂의 청아한 조망 風情
- ③ 南固暮鍾 : 南固鎮의 저녁 노을을 갈라 올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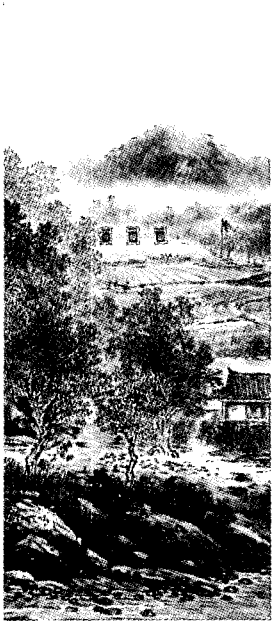
一景 麒麟吐月



二景 寒碧晴煙



三景 南固暮鐘



四景 多佳射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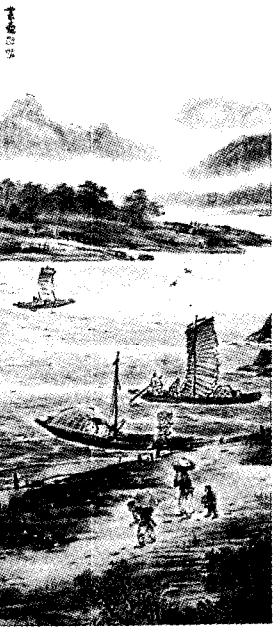
五景 飛飛落雁



六景 德津採蓮



七景 威峰瀑布



八景 東浦歸帆

그림1. 全州八景 (出典; Chonju-City, Chonju Tour Guide 1997, 白榮 尹明鎬 畫)

南固寺의 梵鍾, 또는 산성의 鐵鼓소리를 森羅萬象에 두루 적시는 佛心の 맥박인양 賞讚한 情景

- ④ 多佳射候 : 多佳川邊 물이랑 끼고 기녀들의 춤가락은 옥색 바람에 버들가지 쏠리듯 하고 武官, 閑良들은 浩然之氣를 겨루는 五矢貫中の 과녁관을 겨누고 쏘아대는 壯觀의 風情
- ⑤ 飛飛落雁 : 漁火에 꿈실은 고깃배도 오르내리는 大川 백사장, 飛飛亭에 올라 갈숲에 내려앉는 기러기떼를 바라보며 읊은 風月을 묘사한 風景
- ⑥ 德津採蓮 : 風月亭에 앉아 저녁 놀을 달밤 끼고 뜸부기 우는 湖面을 피리실은 漁火에 젖어 대안의 勝金亭을 내다 보며 짐짓 꺾어든 연꽃 風情
- ⑦ 威峰瀑布 : 玉으로 포말져 떨어지는 외줄 폭포의 秘景
- ⑧ 東浦歸帆 : 鳳翔, 鳳實峰을 내다 보며 高山川 돌아 마그네에 닿는 소금배, 새우젓배의 情景
- ⑨ 坤止望月 : 목마른 말을 몰아 南川, 西川에 갈증을 달래주고 바라보는 달맞이 정경(馬隨草原, 渴馬飲水라 하였고, 여인들은 정월 대보름날 坤止峰에 올라 소원성취를 기원하고 血力を 보강함)
- ⑩ 南川漂母 : 물벼들 늘어선 玉流洞, 寒溪洞 아래 안경다리, 南川橋 천변가로 三三五五 앉은 아낙네들의 빨래하는 風情

### 3. 全州八景 (十景)의 景觀構造 分析

全州八景은 舊 都心을 중심으로 만경강에 이르는 三川, 全州川 그리고 高山川 등의 하천과 기린봉, 승암산, 남고산, 건지산 및 위봉산 등의 산악을 중심으로 背山臨水式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向構圖는 시계방향에 따라 지정 景의 순위가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4方 2개소의 분포 양상으로 地의 8方(8景)과 上下의 10方位(10景) 개념으로도 풀이되며 특히 ‘八’의 의미는 仁義禮智信忠孝悌의 8德目(金 등, 1997)과 8道라는 전체성을 기초로 하여 四通八達의 景觀구조적 상징성 묘사의 차원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그림2, 3)

이러한 景觀體系는 우연한 景의 배분이라기 보다는 全州府域 名所 지정을 적절히 분산시킴으로써 그 시대 문화경관적 風景相을 다양하게 체험코자 했던 先人들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瀟湘八景을 유래로 시작된 八景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觀念化·理想化되는 가운데 視覺的 結束語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八景의 특징과 모티브를 주도해 왔다(安輝濬, 1988). 全州八景 또한 8景 중 3景은 瀟湘典型으로 全州라는 景觀域에 동일 景物을 결속시켰고, 2景은 瀟湘類似型的 형식을 보이며 多佳射候와 德津採蓮은 名所體驗型으로 그리고 威峰瀑布는 名勝型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八景의 주요소는 形體要素 2, 風土要素 4, 意味要素 2개처로 분류되어 형체요소 이외에도 풍토요소와 의미요소를 반영한 시간축의 변동요인으로 이루어진 유동미가 주요 景觀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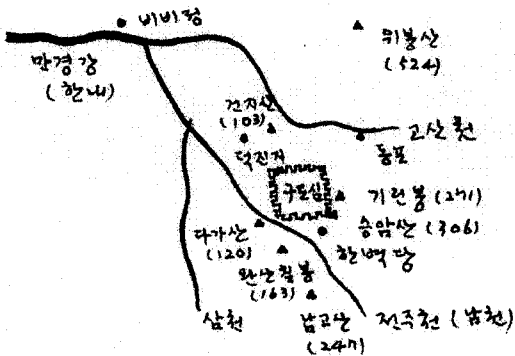


그림2. 全州八景 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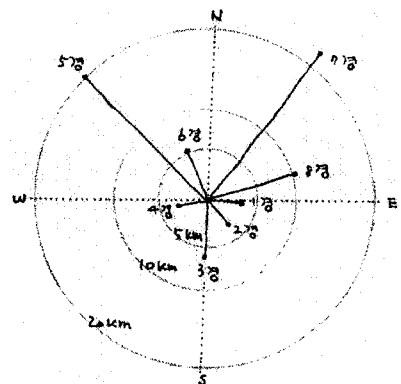


그림3. 全州八景의 方位構成 體系

표1. 全州十景의 景觀要素 및 瀟湘八景과의 형식 비교

景	주요내용	대 상 과 시 점			부대상	변동요인	瀟湘八景과의 형식비교
		주요소	주조망점	주대상			
麒麟吐月	기린봉에 떠오르는 달	형체요소	기린봉	여의주 같은 달	기린봉	시각	洞庭秋月(瀟湘類似型)
寒碧晴煙	한벽루에서 보는 물안개와 무지개	풍토요소	산한수벽부 한벽루	물안개, 무지개,	전주천	시각	山市晴風(瀟湘類似型)
南固暮鐘	남고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의미요소	남고산성 일원	범종소리	남고사, 남고산성	시각	煙寺暮鐘(瀟湘典型)
多佳射喉	무관 한량들이 과녁판을 겨누고 쏘는 다가천변 풍경	풍토요소	다가천변	시위당기며 내는 호연지기	기녀의 춤가락	시각	名所體驗型
德津採蓮	덕진방죽에 핀 연꽃을 따는 모습	풍토요소	덕진호 풍월정	연꽃 · 송금정	덕진호	경년 · 계절	名所體驗型
飛飛落雁	만경강에 내려앉은 기러기떼	풍토요소	대천백사장 비비정	갈숨에 내려앉은 기러기떼	고산천	순간	平沙落雁(瀟湘典型)
威峰瀑布	옥으로 포말져 떨어지는 위봉사 출폭포의 비경	형체요소	폭포 주변	옥으로 포말져 떨어지는 물줄기	위봉산	계절	名勝型
東浦歸帆	고산천 돌아 마그내 선창가로 돌아오는 돛단배	의미요소	고산천변	돛단배(소금배, 새우 것배, 생강배 등)	고산천	시각	遠浦歸帆(瀟湘典型)
坤止望月	목마른 말을 몰아 남천, 서천에 갈증을 달래고 바라보는 흙월대 달맞이	의미요소	남천, 서천(곤지봉)	소원성취를 기원 하며 바라본 달	가련산, 고사평	시각	名所體驗型
南川漂母	물벼들 늘어진 옥류동 · 한계동 남천변가에 팔래하는 아낙네 풍경	풍토요소	옥류동 한계동 아래 안경다리, 남천교 천변가	강변에 팔래하는 아낙네의 풍경	물벼들	시각	名所體驗型

瀟湘八景에서의 의미적 · 형태적 경관요소는 全州라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多佳射喉, 德津採蓮, 東浦歸帆 등 '인간 삶'의 요소와 향토성 짙은 風土要素의 반영으로 관념성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視覺的 結束에 의한 八景의 典型化가 퇴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

景觀形式에는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은 물론 복합적 景觀相이 나타나고 주대상의 可視圈域 또한 遠景에서 至近景까지 다양함을 볼 수 있으며, 물적 · 경관적 · 시각적 · 심리적 영향권내의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

다. 또한 眺望構圖 類型은 지형경관 3景, 파노라믹경관 2景, 위요경관과 촛점경관, 일시적 경관이 각각 1景씩으로 다양한 조망구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표3은 全州八景의 옛 요소와 현재의 시지각적 요소를 분석한 것이다. 남겨진 요소는 대부분 지형 · 수문적 요소와 역사적 건조물로서 문명의 발달에 의해 풍물 및 행위적 요소는 퇴색해진 반면 인구증가와 교통 발달에 따른 住居域의 확대와 도시민의 여가위락공간 요구 등에 따른 利用壓(여가행락에 따른 이용압력)의

표2. 全州八景의 景觀構造 分類

八景	경관형식	가시권역		조망구도유형	조망형태	경관영향권
		조망역	시거리(Km)			
麒麟吐月	자연경관	원경	2.5	Feature L.	신앙형	시각적 영향권
寒碧晴煙	문화경관	근경	0.5	Feature L.	전망형	경관적 영향권
南固暮鐘	문화경관	원경	2.4	Feature L.	풍경형	심리적 영향권
多佳射喉	문화경관	근경	0.5	Enclosed L.	풍경형	경관적 영향권
飛飛落雁	복합경관	원경	1.2	Ephemeral L.	전망형	경관적 영향권
德津採蓮	문화경관	중경	0.6	Focal L.	풍경형	시각적 영향권
威峰瀑布	자연경관	지근경	0.1	Panoramic L.	신앙형	물리적 · 경관적 영향권
東浦歸帆	문화경관	원경	2.0	Panoramic L.	전망형	시각적 영향권

표3. 全州八景의 視知覺要素分析

八景	주시점장의 현지명	남겨진 요소	잊혀진 요소	부가된 요소	되살릴 요소	비고
麒麟吐月	남노송동, 기린봉	기린봉	장대한 sky-line	주변 APT단지군	기린봉의 자연경관	
寒碧晴煙	교동, 한벽당	한벽당, 전주천	淸流水	전주 남원간 도로 교량	한벽사경 실버들, 물놀이터, 淸流	
南固暮鐘	동서학동, 남고산성	남고사 남고산성	남고사 범종의 타종, 산성의 철고	남고사 증축	범종의 타종	
多佳射喉	중화산동, 다가산	다가공원, 穿楊亭	활쏘기	기전여전, 여중고, 신흥중고교, 주변 APT	전통놀이 체험 및 공연	
飛飛落雁	완주군 삼례읍 한내면	대천	비비정 기러기서식처	국도1호선, 철교	비비정 건립 주변의 경관복원	
德津採蓮	덕진구 덕진공원	덕진공원	창포 단오 축제 뜸부기 노래소리	취향정, 수경관, 현수교, 각종 위락 시설	단오축제의 체연시연, 그네뛰기시연, 덕진지의 정화, 창포식재	
威峰瀑布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주졸산	威峰瀑布	폭포음	위봉산성, 위봉사	淸流와 폭포수	수량부족
東浦歸帆	완주군 용진면 봉동읍 경계	고산천	돛단배	남시터, 휴양지, 피서지, 마그네다리, 원주APT	남시터 정경	수량부족

증가로 인공화된 도시경관적 요소가 매우 압도적인 양상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全州八景의 풍경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8년 飛飛落雁의 主視點場(景觀對象의 변동이 없는 일정 眺望圈域)인 飛飛亭의 復元建立이 완료되었으며, 1997년 豊南祭典委員會에서 옛 八景을 주제로 한 詩畫展을 열어 全州八景의 참뎡을 되살리고자 노력하였고, 傳統文化研究所에서도 전주의 역사문화 강좌 및 문화유적답사를 기획하는 등 溫故知新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도시 고유의 얼굴 찾기」시도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都市遺産의 보전은 사회학습의 좋은 계기이자 文化環境 이해의 단서가 될 것이다(趙大成, 1995).

#### 4. 全州八景에 나타난 意味體系

##### (1) 象徴的 意味 表現

景의 數를 가장 많이 사용한 숫자는 八字인데 사람이 근본으로 삼는 八德目, 四柱八字, 四通八達 등을 상징해 볼 때 八景의 의미는 中國 瀟湘八景의 답습적 의미가 함축되어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주 舊府城을 중심으로 四方 2個處의 景을 지정함으로써 空間的 意味體系에 있어서도 四方, 八方 등 '완성된 전체'로 파악하고자 했던 象徴性이 엮이며 매우 관념적인 숫자로 八景을 지정하였던 것 같다.

##### (2) 實體的 景의 表現

景의 視點 또는 視點場은 麒麟峰, 高山川, 飛飛亭, 德津池, 威峰瀑布와 같이 시각적으로 감지되는 물체의 壯觀點이나 幽玄美를 이미지화 시킨 실제적 경관(달, 배, 기러기, 연꽃, 폭포수)이 포함되어 있다.

##### (3) 自然現象의 表現

자연현상이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느낌으로서의 麒麟峰에서 토해내듯 떠오르는 달(吐月), 동쪽포구(高山川)로 滿船하여 돌아오는 배(歸船), 너른 평야에 내려 앉는 飛飛亭邊의 기러기 떼(落雁) 등 流動的인 形態美를 賞讚하고 있다.

##### (4) 人間 삶의 表現

어떤 장소, 시점에서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인간 삶의 표현으로 저녁 노을을 갈라 올리는 南固山 山寺의 종소리(暮鐘), 全州十景의 하나로 회자되는 빨래하는 南川(全州川)의 아낙네모습 등은 자연속에 인간의 삶이 溶解되어 景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IV. 全州八景의 照明 및 繼承方案

#### 1. 全州八景의 照明

景觀이나 環境은 삶의 조건을 풍부하게 해 주고 이를 통해서 인간들의 감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주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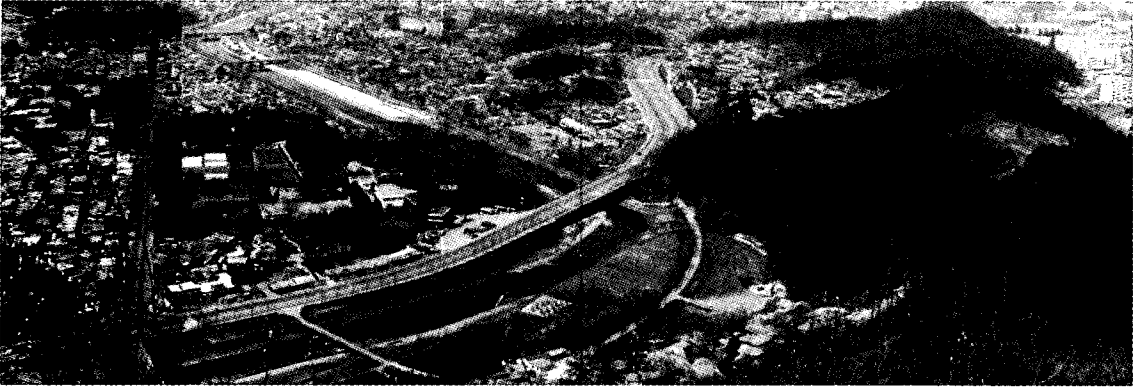


그림3. 僧岩山에서 바라본 寒碧晴煙과 전주천(남천) 전경

자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八景과 같은 景觀文化財를 인식함에 있어서 環境의 疏通(communication)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훌륭하고 의미 있는 景勝이나 文化財가 있다 하더라도 廣域環境 체계속에서 관리 보전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는 머지않아 쇠락할 것이 분명하다.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역사경관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닌 八景이라는 模範性(being exemplary)과 典型(being typical)을 보여주는 명승지가 있게 마련인데, 八景의 의미는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답거나 흥미있는 자연계의 현상이나 자연 특질을 지닌 장소를 지칭하게 되면서 傳統的 風景美와 경관구조를 반영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全州八景의 主對象 공간은 주로 府城 남쪽의 물과 산을 겹하고 있는 南門과 全州川, 韓屋保存地區 등이 가장 빈번히 묘사되고 있어 이곳이 당시 주민들에게 특징적인 경관으로 인식되었던 듯 하다(金漢培, 1998). 그러나 麒麟峰, 僧岩山, 完山七峰, 南固山, 多佳山, 全州川 등은 경관문화재로 인식되지 못한채 아파트군과 불량 건물군에 잠식당하였고 스카이라인의 파괴, 수질오염 및 외래수종(메타세콰이아, 허말라야시드 등)의 도입 등으로 낭만과 풍경미를 간직했던 景은 상당부분 훼손되거나 주민의 체험이 단절된 옛이야기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문화적 風流性과 자연과의 친화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景을 보유했던 歷史都市 全州 되살리기 운동의 전개와 함께 傳統景觀의 保存 및 復元 방법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八景 중 二景의 主視點 대상이 되는 寒碧堂은 호남의 명승으로 알려져 詩人墨客들이 그칠새 없이 찾아든 곳으로 호남읍지에는 저명한 인사들의 詩文이 담겨 있어 그 시절의 풍류를 살필 수 있으며 僧岩山을 배경으로 전면부에 흐르는 全州川邊의 휘늘어진 버들 정경과 멀리 固德山의 응봉이 조망되는 絶景地였다. 근대화 이전까지 寒碧堂에서 인지되는 계절별 경관체험요소를 살펴보면 東固城의 花柳와 萬馬洞의 淸風, 玉流洞의 秋林과 南固山의 雪風 등(全州市, 1982)이었는데 동일 시점장에서 계절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관체험을 느끼고자 했던 선인들의 경관관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남원방면으로 향하는 6차선 도로가 확포장되고 거대한 콘크리트 교량이 寒碧堂 전면부에 설치됨으로서 옛 아취가 손상되었고, 川邊에 휘늘어진 버들의 정취를 찾아볼 수 없으며 水面積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생물다양성이 교란된 상태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寒碧堂 전면과 주변에는 상업건물이 난립하고 전라선 이설과 함께 남아 있는 콘크리트 터널과 노후 불량 건물군이 무질서하게 입지하고 있어 傳統景觀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 교란된 실정이다.

3景의 景觀對象場이 되는 史蹟 제 294호 南固山城은 後百濟의 견훤이 쌓았다고 하는데 文獻에 의하면 “전주의 남쪽 7리에 있으며 돌로 城을 쌓았는데 둘레가 9천9백20자 였다” 한다. 南固山에는 천경대, 만경대, 억경대 등 암반으로 된 세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만경대 남쪽 벼랑에는 麗末 충신 정몽주가 쇠퇴해 가는 왕조의 비애를 읊었다는 詩가 새겨져 있기도 하다



(전주시, 1982).

이 山城은 군사적 요새지로 南固寺 전방에 남장대, 후방에 북장대가 있었으며 서문지에는 樓閣을 세웠던 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南固山 골짜기로 올라가면 충경사가 자리하고 산성내에 주시점장인 南固寺가 있으며 남면하여 관우를 모시는 관왕묘가 있고, 울창한 수림대로 이루어진 자연 원생의 분위기가 가득한데 봄의 진달래, 가을의 단풍, 硯石岩이 노출된 암벽경관 등으로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谷底에 자리한 불랑주거 건물군과 고층아파트로 인해 스카이라인 파괴 등 경관미가 저해되기도 하지만 능선을 따라 수축되어진 山城의 성벽을 타고 정상부까지 올라가면 전주시가지와 산성내부를 한눈에 俯瞰할 수 있는데 全州川, 僧岩山, 麒麟峰, 完山七峰 등의 자연경관과 북쪽으로 펼쳐지는 풍남동, 교동 일대의 역사경관 그리고 보다 멀리 都市景觀이 어우러지면서 전개되는 조망은 아직도 옛정취를 간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6景인 德津採蓮의 德津公園은 넓은 수면적과 연꽃이 어우러진 분홍빛 장관이 가히 일품인데, 판매시설과 음식점 건물 등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야외공연장은 수려한 연못경관을 차단하고, 각종 휴게편의시설들은 소재사용에 있어서 자연경관과 이질감을 야기시키는 물론 고풍스러운 穿楊亭과 인접한 보트장은 부조화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공원 주변의 상가 및 밀집된 주택지, 덕암리 마을과 서호 APT, 전북대 등 건물군이 湖畔景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전주시, 1996) 전통경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2. 八景의 繼承 方案

### (1) 파괴된 歷史景觀圈域의 再構成

再構成(rehabilitation)이란 保全(conservation), 復元(restoration), 改善(renovation), 移轉(relocation), 再開發(redevelopment) 등(Attoe, 1979) 복합적인 요소를 절충한 의미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전통적 의미를 상당부분 상실한 八景과 같은 歷史景觀圈域의 再構成을 상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歷史都市는 자연에 둘러싸이고 도시와 자연이 서로 조화되어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었던 반면, 현대도시

는 기능위주의 건물이 무질서하게 조합된 형태로서 답답하고 폐쇄적인 경관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형태의 공존은 시공간의 연속성에 대한 전통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형태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歷史景觀(八景)에 대한 현대적 접근은 個體 景觀 구성요소들을 고립된 채로 보호하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역사경관요소들을 線的으로 연결시키며, 圈域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景觀 구성요소들이 조화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풍남문과 전주천, 한옥보존지구를 비롯한 다가교에서 승암교에 이르는 주변일대를 건축법상 도시설계지구 및 상세계획구역으로 특별 지정하여 도시설계 차원의 구상적인 장소설계(concret place design)로 이 지역 역사문화 경관의 총체적 체계통제(holistic system control)방안이 요망된다.

### (2) 歷史景觀文化財 권역의 用途地域 설정

베니스, 로마, 파리와 같은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현대에 이르기 까지 역사적 도시경관의 틀을 일그러뜨리지 않고 조화롭게 전통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시의 대명사로 지칭되고 있다. 즉 현대문명을 수용하면서도 그들의 景觀文化財를 잘 보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경관은 舊韓末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1백여년의 세월동안 급격히 파괴되거나 멸실되었고, 문화재 주변지역의 불량주택 및 시설입지, 가로경관의 불량, 불량한 접근성 및 주민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슬럼화와 전통이 병존하는 이질적인 공간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밟지 않기 위해서 기 지정된 文化財 保護區域과 史蹟 또는 有形文化財를 포함한 名勝이나 天然記念物은 물론 주변의 일정한 경관조망권역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景觀文化財圈域의 指定과 保存 그리고 管理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全州八景 등 경관문화재의 관리체계 수립과 함께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 文化財 保存區域, 歷史景觀保全區域, 歷史環境復舊圈域 등 用途地域을 구분하여 적극적 경관관리권역과 소극적 경관관리권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正體性이 확보된 傳統景觀美 구현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歷史都市의 대부분은 낮은 목조건물로 스카이라인이 이루어졌던 경관구조에서 城郭은 파괴되고 콘크리트재로 급조된 거대한 스케일의 고밀도 건물군으로 전환되었다. 즉 많은 역사경관요소가 재개발이나 환경개선이라는 명분에 잠식당하고 파괴되어 正體性을 喪失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역사경관권역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훼손 정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전주의 경우 이미 콘크리트문화의 산물인 백화점, 호텔 등이 도심부에 중심건물로 자리한지 오래며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慶熙殿, 客舍, 豐南門, 鄕校 등은 건조물 개체문화재 단위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歷史景觀相 再現에 근접할 수 있다는 사례를 水原城郭의 복원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個體文化財 주변권역과 조망권역의 정비를 통하여 古典美를 부각시키는 전략과 함께 바람직한 스카이라인 확보, 高度地區 圈域의 지정확대, 전통적 意匠 등을 활용한 보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역사경관과 현대 都市景觀 構造가 調和되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 (4) 八景圈域의 教育 文化生活 空間化

歷史景觀 이미지를 표출시킬 수 있는 많은 구성요소들이 존재하는 서울, 全州, 慶州와 같은 고전도시들은 여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 傳統美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 이 도시들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관문화재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채 古都가 가지는 역사와 문화체험이 어려운 도시로 전략해가는 인상이 심화되고 있다.

八景을 포함한 景觀文化財圈域은 생활공간 개념으로 승화시켜 직접 이용하고 체험(전통놀이의 再現 및 書院, 鄕校 등에서의 講學, 樓亭과 연계된 공원기능의 확보, 八景圈域과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계 등)하며, 현대생활에서 망각하기 쉬운 역사적, 향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研究 및 教育의 場으로 활용되는 문화공간의 역할이 요구된다.

한편 歷史景觀圈域에서의 景觀管理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견인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보존정책

과정에서 주민, 지방의 관련분야 학자, 시민단체 등의 바람직한 의견이 개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므로 상향식과 하향식이 접목되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역사공간과 전통경관을 되살리기 위한 景觀文化財 復興委員會의 발족과 復興運動의 물결이 문화의 식속에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다만, 傳統景觀의 解析과 繼承方法은 인접 학문과의 심층적인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원형추구에 근접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접학문의 연구업적을 검토하면서 전통추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 V. 結言

본 연구는 현대도시의 景觀正體性 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를 목표로, 全州八景의 가치와 의미를 개인식함과 동시에 景觀構造의 解釋을 통해서 역사문화 환경의 保存과 再生을 위한 접목방안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全州八景은 옛 府城을 중심으로 각 方位당 2個處의 景이 배치된 向構圖의 상징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全州府를 중심으로 '完成된 全體'를 景觀相으로 구현하고자 했으며 四通八達의 景勝 지정의지가 함축된 경관 구도체제로 파악되었다.
2. 全州八景은 고전적 八景의 視覺的 結束語를 유지한 채 全州 固有의 풍토성 짙은 景觀相을 보였다. 특히, 실제적 경관체험요소의 활용, 자연현상에 대한 표현과 인간의 생활환경이 용해된 내용을 함축한 다양한 景觀構圖를 보이고 있다.
3. 全州八景의 경관구조 및 형식은 이름난 장소와 향토적 행위가 조합된 名所體驗型 및 자연요소의 향토적 재현을 꾀한 瀟湘類似型 그리고 瀟湘典型的 특성을 유지한 채 시각적·심리적·경관적 영향권하에서 遠景, 中景, 近景 등 다양한 視點場을 형성하고 있다.
4. 景觀文化財의 성격을 갖는 全州八景圈域은 상당부분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옛 八景을 모티브로한 파괴된 역사

경관권역의 再構成을 위해 도시설계지구 및 상 세계획구역 지정은 물론, 스카이라인의 설정, 역사경관상 복구, 八景圈域의 文化的 正體性 구현과 教育文化 生活空間化와 같은 현대적 계승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5. 八景과 같은 역사경관요소를 景觀文化財로 인식함과 동시에 이를 총체적으로 保存·管理하는 광역화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 文化財保存區域, 歷史景觀保全區域, 歷史環境復舊圈域 등 적극관리 권역과 소극관리 권역으로 분리하여 관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이를 위해 歷史文化景觀에 대한 地方自治體의 景觀條例 制定 등 현실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8景의 연계화와 도시미관의 증진 차원에서 民官活動을 통한 '전주천 되살리기 운동' '옛 정경 찾기 운동'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引用文獻

1. 姜榮祚, 金英蘭(1991) 韓國八景의 形式과 立地特性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0, 27~36
2. 姜炳基(1996) 도시속의 歷史文化環境, 건축, 96(7), 14~19
3. 建設部 國立地理院(1982) 韓國地名要覽
4. 具美來(1992) 韓國人의 象徵世界, 교보문고, 11~36
5. 金基浩(1993) 독일의 都市景觀管理 -개념, 제도, 사례-, 한국조경학회지, 21(3), 127~130
6. 金東必, 李基撤, 靑木陽二(1997) 韓國과 日本의 八景의 變化過程에 관한 기초적 고찰, 한국정원학회지, 15(1), 49~58
7. 金東鉉(1996) 歷史文化環境의 保存과 再生, 건축, 96(7), 3
8. 金仙一(1992) 關東八景의 景觀特性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9. 金漢培, 朴贊龍(1987) 朝鮮王朝時代의 都邑景觀體系研究 (Ⅱ):全州府, 晉州牧, 公州牧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15(2), 115~138
10. 金漢培(1998) 우리도시의 얼굴찾기, 태림문화사, 200~234
11. 都市情報(1988) 특집 : 都市開發과 文化財 保護, 7(2), 1~7
12. 朴文浩(1993) 日本의 都市景觀 形成에 대한 制度, 한국조경학회지, 21(3), 135~140
13. 송정희(1961) 全州市의 發達, 녹우회보, 3호, 이화여자대대
14. 申相燮(1995) 歷史景觀을 조명해 보는 시각과 관점, 환경과 조경, 91, 138~145
15. 申相燮(1996) 歷史都市 全州의 景觀文化財, 환경과 조경, 95, 139~147
16. 安東晚(1991) 歷史景觀의 保全과 管理, 한국조경학회지, 19(2), 104~106
17. 安啓福(1989) 樓閣 및 亭子樣式을 통한 韓國 傳統庭園의 特性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예학과 박사학위논문
18. 安輝濬(1988) 韓國繪畫의 傳統, 문예출판사, 163~249
19. 李重煥(1987) 擇里志, 이익성 譯, 을유문고
20. 張明洙(1993) 朝鮮時代 都市計劃特性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8(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16
21. 全州市(1982) 우리고장 全州
22. 全州市(1986) 全州市 都市文化 環境造成 基本計劃, 18
23. 全州市(1994) 全州市史, 889~891
24. 全州市(1996) 덕진공원 조성계획
25. 趙大成(1996) 都市開發과 歷史文化環境, 건축, 96(7), 21~23
26. 秦熙成, 盧載鉉(1991) 八景의 意味體驗에 따른 風景概念의 構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1), 31~43
27. 崔杞秀(1989)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 景觀構造의 解釋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8. 崔杞秀(1991) 歷史景觀의 構造와 解釋, 한국조경학회지, 19(2), 99~103
29. 崔杞秀(1994) 서울의 景과 曲, 서울학 교양총서 3, 서울시립대부설 서울학 연구소, 183~189
30. 최선주(1996) 日本의 歷史환경 保存再生을 위한 制度, 건축, 96(7), 83~88
31. 黃琪源(1993) 都市景觀과 都市計劃, 한국조경학회지, 21(3), 117~121
32. Attoe, W. O(1979) Historic Preservation. in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297~319. Edited by A. J. Catanese and J. C. Snyder,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88